

'2019 목포 문화재 야행(夜行)' 연다

내달 20일~23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목포의 근대유산을 활용하는 대표적 행사인 2019 목포문화재 야행(夜行)이 다음달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열린다.

근년에는 'Back to the 100, 목포 1,000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야행은 준비 초기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제 및 프로그램(8야, 46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부제인 'Back to the 100, 목포 1,000년의 꿈'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목포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앞으로 목포의 1,0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운동 스

토리와 미션수행을 접목한 문화재 인증투어(9개소) '나는야! 독립군'을 새롭게 선보이며, 개막공연으로 창작뮤지컬 '사의잔미'가 주무대인 근대역사관 2관에서 상연된다.

완도섬에 산재한 다른 문화재 공간에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채롭다.

근대역사관 1관에서 '근대야콘서트'와 '근대역사문화공간 팝업카드 만들기'가 진행되고, 근대역사관 2관에서는 개막공연을 포함해 '100개의 손가락 피아노', 연극 '조금새끼',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패션쇼 1897 등의 공연이 가을밤을 뒤흔들었다. 또, 목화야행 등 만들기, 문화재 슈링클스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오거리문화센터에서는 목포 무형문화재 3인의 판소리 공연 '명창을 만나



다와 '문화재 쿠키만들기', 성육기념관에서 '클래식 오페라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총 12천을 만나볼 수 있는 '당대의 춤, 100년', '페이스 페인팅 체험' 등이 진행된다.

특히, '명창을 만나다'와 '당대의 춤 100년'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어우러지는 문화재 활용의 진수를 보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시민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에 목포KBS(경동성당)와 국립목포대학교(목포진 역사공원)가 동참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목포야행 브랜드 공연 '당신의 만찬', '남만북포 음악회', '로봇 마당극', 'VR 콘텐츠 체험' 등이 행사에 풍성함을 더한다.

강진군, 딸기 수경재배농가 원수분석

화이분화 검사도 병행



강진군은 딸기 정식철이 다가옴에 따라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배양액 조성을 위한 원수분석과 화이분화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하수의 비료성분 분석과 화이분화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올해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경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양액처방을 바탕으로 한 양액관리 기술이다. 이러한 양액처방을 위한 원수분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을 요

구하는 작업으로 민간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자체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하수만 맡기면 원수분석으로 재배에 필요한 양액조성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딸기는 가을의 짧은 낮길과 낮은 온도가 일정기간 지난 후 정식해야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 간혹 재배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너무 일찍 심는 바람에 꽃이 없는 상태로 자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이분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수검사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500ml 물통에 원수를 담아, 화이분화 검사는 딸기모종 3~5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에 의뢰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진도군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건강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매년 전국 25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전국 228,610명 명)해 매년 8~10월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528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는 주민들 건강수준, 우리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해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240개의 설문지를 조사하며, 작년과 동일하게 혈압, 신장, 체중 측정을 도입해 고혈압 유행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보건소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사전 교육 실시와 표준조사지침을 숙지 한 후, 보건소 담당자와 책임대학교 지도감독 하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가구원 동의 후 면접조사를 수행한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개강

완도군은 지난 20일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서 2019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하반기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훈련, 취업 연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36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147명이 취업 및 창업의 성과를 거두어 완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창출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해양지유자원 수산가공산업 창업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양지유제품 가공기술 및 마케팅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주 3회, 총 162시간이며, 식품개발 및 가공, 농·수

산물 유통 및 마케팅, 창업 준비 및 경영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해양지유관련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하반기 교육생은 19명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였고, 이중 귀어 및 귀촌이 7명으로 교육생의 35%를 차지했다.

군에서는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도 취업 및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수료생들에게 완도군 및 유관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시가산점 혜택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과수화상병 방지 교육 실시

화상병 육안진단 및 안전관리 농가행동요령



무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과수화상병 관내유입 방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

로 교육을 실시했다.

과수화상병은 배나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병이 발생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화상병이라고 하며, 병발생 시 과원전체를 폐원해야하고 치료방법이 없는 식물검역법상 금지병해충

이다.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소 송정훈 박사를 초청하여 화상병 육안진단 및 안전관리, 병발생시 농가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올 봄 사전 방제약을 공급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병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농가는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화상병 세균이 작엽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한다."면서 "나무를 자주 꼼꼼히 살펴보고 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정신건강이동상담실 운영



영암군 보건소는 지역 노인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서호면 소흘마을을 시작으로 어르신 컴퓨터 경로당을 방문하며 정신건강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정신건강이동상담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

살 문제와 더불어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어르신 마음 돌봄을 통한 우울 및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읍·면 10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각각 10회씩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를 거점으로 영암군 정신건강 인프라가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예방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